



간추린 청렴 소식

[1] 부산서부지청, '다함께 쓰담쓰담' 행사 진행

부산서부지청은 깨끗한 부산 바다,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하여 관내 명소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쓰담 걷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주워담으며 걷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환경보호운동

[2] 포항지청, 울릉도 주민 대상 청렴의지 홍보



포항지청은 관내 낙도 지역인 울릉도를 방문하여 학생들 준법 교육, 경찰관 직무교육, 청렴 명소탐방 등을 통해 검찰의 청렴의지를 홍보하였습니다.

울릉도 거주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울릉도의 유일한 변호사를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였습니다!

[3] 남양주지청, '전 직원 기관장 청렴교육' 실시

남양주지청은 지청장이 직접 만든 PPT 자료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 이슈인 '갑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혹은 '갑질' 가해자는 아닌지 되돌아보며, 직원 모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4] 청주지검, '청렴 미(米), 나눔의 미학' 진행



청주지검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자 쌀과 쌀로 만든 가공품(쌀과자, 쌀빵)을 준비하여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장 이하 청 간부 및 농협임직원이 함께 쌀을 나눠주며 청렴의지를 전파하였습니다 🍵

👍 칭찬합니다

2024년도 3분기 클린콜 우수 직원 선정

'24. 10. 30. 대검 감찰부에서는 일선 청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 및 클린콜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우수 직원 4명을 선정하고 격려**하였습니다.

* 기록열람담당사, 압수물 가환부, 기소중지 재기, 범죄피해자지원

광주지검 박OO	거창지청 최OO
서울북부지검 김OO	대검 서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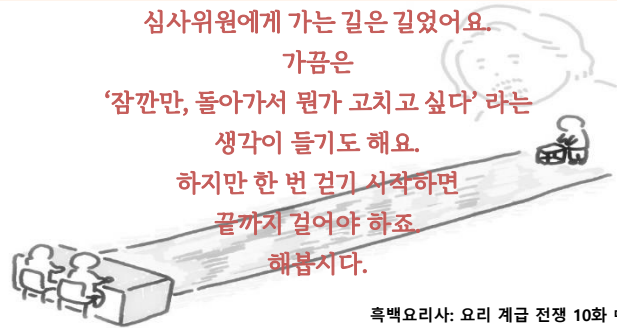
아래는 클린콜 민원인 칭찬의견 중 일부입니다.

“미소 지으며 일어나 맞이해주시고 업무 처리도 매우 빠르셨습니다.”,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매우 친절하였습니다.”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심사위원에게 가는 길은 길었어요.
가끔은
'잠깐만, 돌아가서 뭐가 고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한 번 걸기 시작하면
끝까지 걸어야 하죠.
해봅시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10화 中

최근 중영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재야의 고수 셰프들부터 이미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스타 셰프들까지 총 100명의 셰프가 오직 '맛' 하나로 맞붙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 위 대사는 '인생 요리'를 대결 주제로 한 10회차 방송에서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인 에드워드 리 셰프가 자신의 인생 요리를 들고 심사받으러 가는 도중 했던 말입니다.

무언가 결과물을 낼 때 최선을 다했다면, 아쉽고 두렵더라도 평가는 내 영역 밖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나아갈 뿐이라는 그의 말은 요리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 그림 출처: 블로그 '지구의 갯생일지'

청렴 상식이 쑥쑥!

조선시대 청백리 밥상 탐구



강진 다산청렴밥상

금년 여름에 내가 다산(茶山)에 있을 때 상추로 쌈을 싸서 먹으니 손이 문기를, "쌈을 싸서 먹는게 절여서 먹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하기에 내가, "이건 나의 입을 속이는 법일세" 라고 한 일이 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모름지기 이런 생각을 가져라. 정력과 지혜를 다 하여 번소간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으리라. 이러한 생각은 눈 앞의 공한 처지를 대처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록 귀하고 부유함이 극도에 다다른 사군자(士君子)일지라도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이 근(勤)과 검(儉) 두 글자를 버리고 손을 댈 곳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반드시 가슴깊이 새겨두도록 하라.

아들에게 보낸 편지 中



▶ 검소함을 실천하기 위해 입을 속이고자 상추쌈을 먹었다는 다산 정약용선생이 즐겨드셨던 것으로 전해지는 조밥, 아욱 된장국, 바지락전으로 구성된 다산청렴밥상. 제철 채소로 무친 나물과 김치를 곁들여 선비의 인검과 청렴을 강조한 다산의 애민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장성 청렴밥상&대가밥상

▶ 아곡 박수량 선생의 청백리 밥상을 모티브로, 연꽃차로 우려내 밥을 찐 연잎밥과 토속 음식인 곱감을 이용한 떡갈비 및 유황, 삼채요리를 접목해 현대화한 청렴밥상



아산 맹씨행단 가지선



▶ 고불 맹사성 가족이 살던 행단(선비가 학문을 닦는 곳)에서 진행되는 청백리 밥상 체험을 통해 만나보는 신창 맹씨 집안의 종갓집 음식, 가지선 요리

* 사진 출처: EBS 「한국기행」, 브레이크뉴스, (주)문화상상연구소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미국의 정부윤리법과도 유사한 이 법은 무엇일까요?

- ① 형법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③ 형사소송법

※ 힌트 : Monthly청렴 2024년 10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4. 11. 17.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10월호 퀴즈 정답은 ① **5만 원**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추! 당첨

서OO(안양), 김OO(부산동부), 조OO(서울중앙), 박OO(수원), 이OO(서울남부), 우OO(제천), 강OO(서울중앙), 이OO(대검), 박OO(광주), 정OO(외부)

청렴 한 컷



♣ 청빈의 상징 백비탕(白沸湯)



조선시대 선비집안에서 손님접대를 할 때는 밥상에 반드시 국을 올려놓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국을 마련할 수는 없고, 손님접대는 해야 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올려놓는 탕이 바로 백비탕이었다고 하죠. 맹물을 끓인 것을 점잖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백비탕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청렴강직하기로 이름났던 낙파 류후조의 소문을 듣고 흥선대원군이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류후조는 대원군을 대접하는 밥상에 김치와 된장, 간장 한 종지, 보리밥과 백비탕을 올렸고 그의 청빈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대원군이 후일 정권을 잡은 후 그를 중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박한 살림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태도, 이를 곡해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 평가하는 모습 모두 감명을 주는 일화라고 하겠습니다.

청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